8권 1호 지식경영연구 간행에 즈음하여

지식경영연구 편집위원장 이희석(KAIST, hsl@gsms.kaist.ac.kr)

기업 경영에서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은 이런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드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빅터 브리커는 성공의 법칙은 곧 배반한다고 하였다. 기업 전략도 고객과 시장의 변화에 농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실패한 것이다.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만으로는 승부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성공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이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은 주관적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형성되는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경영의 근본의 큰 화두는 기업 생태계에 있음은 주기에 사실이다.

이번 호에도 기업 상장의 주요한 동력으로의 지식경영을 학습하시는 여러분이 될 4편의 논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논문을 생태계 관점에서 도입해 보는 것도 재미 있는 연습이 될 것입니다.

첫번째 연구 논문인 “대량 맞춤 환경에서 지식경영 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조성의 이원준 김종욱)은 고객 요구의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대량 맞춤 생태계 환경에서의 지식경영 전략을 탐색하고 있다. 지식경영이 기업 전략이나 운영 프로세스와 어떻게 연계되어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인 “관계 성숙 모형과 SKT 사례: 지식 파트너와 함께 출을”(권태형 최재용 이강호)은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파트너의 관계 모형을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 컨퍼런스 시대에서 지식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의 발전이 중요한을 파악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번째 연구인 “Threat Strategy within Organizations: An Empirical Study on Purchasing Decision Making”(Che-Jen Su 조남재)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위험(Threat)이라는 행동 요인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복잡한 지식 생태계에서는 위협이라는 생각해 내기 어려운 인자도 고려해야 하겠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 면에서 토보 있다. 마지막 논문인 “특히 인용 수명분석을 이용한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에 대한 연구”(성용현 유신희)는 기술의 경
제적 수명의 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술의 진부화 개념, 기술 경쟁력 그리고 시장 경쟁력을 고려한 추정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 가치 평가, 기술 이전 가격 및 라이선스 로열티 책정 등의 실제 적용을 위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점이 신선하다.

독특한 연구로 복잡해 지는 자식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저자 분들에게 감사 드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 주신 심사위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